

2022년 02월 21일(월) 제512호

발행인 고영진 주간 손영호 사무 오목연 국장 오서영 발행처 전남순천시중앙로255 순천대언론사 언론사사무실 061-750-5090 메일 press@scnu.ac.kr

2 대학의 발자취

3 청춘과 청림

4-5 향림인을 향한 스포트라이트

6 팩트체크

7-8 알고있지만



순천대학교

SUNCHON NATIONAL UNIVERSITY

2022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환영사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 무척 아쉽지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께 인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대학 생활은 여러분 각자의 꿈을 향한 도전에 함께할 동기들, 여러분을 따뜻한 격려로 이끌어줄 선배들, 조교 선생님, 그리고 훌륭한 가르침으로 인도해주실 교수님 등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대학 생활은 스스로의 의지가 있어야 자신의 성장을 경험하며 알차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 찾고, 두드리고, 나아가간다면 4년 후 여러분은 더욱 성장한 자신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87년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과 함께 미래를 개척하는 전남대표 국립대학' 순천대학교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량강화 활동으로 여러분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천대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순천대학교 정시 경쟁률, 전남권 1위

2022 올해 전남 동부지역 국립대학교의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

2021학년도에는 [1.78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2022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645명

모집에 2156명이 지원해 [3.3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전남권 대학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학령인구 감소 등 대입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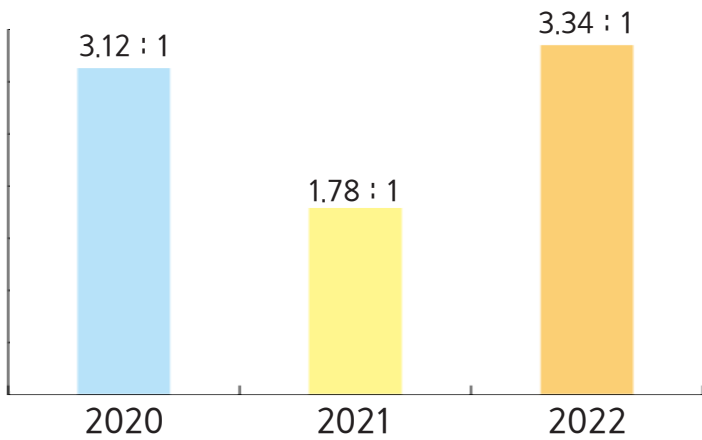
수시모집에 이어 전남권 지역 대학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우리 대학은 2022학년도 정시 모집을 가군과 다군으로 나눠 진행하였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가군은 58명 모집에 172명이 지원하여 각각 [2.97 대 1], [3.38 대 1]이 지원했다. 정원 내 모집단위별 최고 경쟁률은 각각 약학과 [44.7 대 1], 간호학과 [13.1 대 1], 컴퓨터공학과 [8.4 대 1]을 기록했다. 예체능계열은 모집단위 실기 고사를 거쳐 2월 8일에 최초 합격자를 2월 9일부터 11일까지 합격자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대학 등록금은 2021년 정보공시 기준, 학기당 평균 197만 원으로 전 학생의 66.2%가 장학금 혜택을 받으며,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은 68.5%이다. 학생생활관은 주말과 공휴일 포함 1일 3식 제공하는 것으로 학기당 약 109만 원에서 156만 원이며 신입생에게는 생활관 우선 선발권을 주고 있다. 학생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교육 여건은 최상으로 유지하고자, 전국 최저 수준의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순천·여수·광양 등 전남 동부권 학생들에게 통학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체육관과 학군단 신·증축에 이어 도서관과 학생회관 전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등 캠퍼스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우리 대학 관계자는 “고영진 총장을 중심으로 전 구성원들이 노력했던 대과 체제 학사구조 개편, 핵심 역량 기반의 교육 과정 개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확보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교육부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결과 일반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연말 기준 취업률도 인근 국립대학들을 추월함으로써 전남 최고 명문 대학으로 등극하였다.

_문서윤 기자

순천대 최근 3년 정시 경쟁률



여기, 지금, 우리! 꿈은 이루어진다. 'D.C.T 전공체험 박람회'

지난 1월 4일, 순천대학교는 전남지역 예비 고3 학생들의 대입 준비와 진로 설정을 위한 'D.C.T 전공 체험 박람회'를 개최했다. 순천대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전공 맛집 순천대학교에서, Dreams Come True'라는 주제 아래 전라남도 내 20개교 예비 고3 학생들 127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박람회는 △2023학년도 순천대학교 입학전형 안내 △대입, 진로, 심리 상담 △대학생-고교생 1:1 멘토링 △전공 및 동아리 체험 활동 △대내외 활동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부스가 설치하여 고등학생들에게 진로 역량 강화와 대입 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체험형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1,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코로나 건물 입장 시 자가 진단 키트를 통한 음성 결과를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영하였다.

(만족 이상)이 88.5%를 차지했다. 고교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은 언론사, 농업경제학과, 일본어일본문화학전공 등의 부스의 경우, 폴라로이드 촬영 및 꾸미기, 경제용어 퀴즈, 일본 전통 놀이 체험 및 전통 의상 착용 체험 등의 학생 중심 체험형 활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람회에 참가한 고교생들은 “생소한 학과와 진학 정보들을 새롭게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예상치 못한 학과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수험생활에 큰 자극제가 됐다. 나도 멋진 대학생이 되어 고등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며 부스 체험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고교생들은 “시도하고 싶은 체험 부스는 많은데 그에 비해 시간이 부족했다.”, “더욱 다양한 학과를 체험하고 싶다. 진학을 희망하는 전공 부스가 없어 아쉬웠다.”와 같이 체험 부스 다양화에 대한 바람을 나타냈다.

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대입정보박람회'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주관 '2022학년도 대입 광주 진로진학박람회' 등의 중 고등학생들의 전공 체험 및 멘토링 활동을 운영했다. 더하여, 지난해 전남고교생 대상 'SCNU 찾아오는 전공 체험

및 전공 알리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우수 인재 발굴과 양성을 통한 지역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에 힘쓰고 있다.

_오서영 기자



박람회 만족도 조사 결과(학생지원과 제공)에 따르면 박람회 운영 시간, 체험 부스, 기념품 및 간식, 운영 날짜를 포함한 종합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답변

한편, 순천대는 지난해 전라남도교육청 주관 전라남도 여수에서 열린 '2022

우리대학 교육혁신의 새로운 반향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과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하여'

일반재정지원대학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선정되면 무엇이 좋은 것인가. 2021년 하반기에 이룬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재정지원대학이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선정된 대학을 의미하며 해당 대학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교육부로부터 일반재정과 특수 목적 재정,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모두 지원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우리 대학은 '일반재정지원대학'이 아닌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었다. 그 결과, 특수목적지원과 특수목적사업의 신청은 가능하나, 일반재정 지원이 제한되었다.

1차 진단 이후 취임한 고영진 총장을 중심으로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지난 불명예를 씻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성실히 임했다. 그 과정에서 국립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최우수 등급 선정, 국공립대학 청렴도 평가 최우수 등급, 양성평등 우수기관 선정, 정부 초청 장학생(GKS) 한국어 연수기관 선정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마침내 지난 8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Grand ICT 지원 사업, 4차 산업혁명 선도대학 사업 등의 지원 강화를 통해 추가적인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장, ICT 융합공학 학부 신창선 교수는 본 사업단은 2020년 교육부에 의해 선정되어 지역 성장과 스마트 농업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스마트 농업과 ICT 융합 기술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음을 밝혔다.

교수가 실시간 양방향 화상강의 및 비대면 동시 강의가 가능한 강의실과 컴퓨터 실습실(2실)을 구축·운영 중에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 평가 방식의 명칭이며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2차 평가를 명칭과 몇몇 방식을 바꾸어 실시한 것이다. 진단의 목적은 대학 경쟁력의 큰 요인 중 하나인 재정 지원을 양질의 대학에 집중하여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사업단의 대표적인 사업은 교육과정 혁신으로는 ICT 융합공학부 및 참여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마트 농업 융합전공을 2021년 1학기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교육 방법 혁신으로는 기존 단순 강의 형태의 수업방식에서 탈피하고자 문제 해결형, 팀티칭, 동영상 강의 등으로 다양한 수업 형태를 제공한다. 교육 환경 혁신으로는 학생 및

그러나 본 사업단은 아쉽게도 2022년 2월 말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있다. 현재와 동일한 명칭과 내용으로 교육 혁신 지원에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을 기점으로 산학협력 선동 대학 육성사업(LINC 3.0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연계 이후에도 대학의 교육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을 ICT 융합공학 학부 신창선 교수는 밝혔다. 교육의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당시 진단으로 인한 대학의 분류는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_정지수 기자

청렴한 학교사회를 향한 걸음을 찾아서

경쟁 사회는 우리에게 평범의 기준을 들이밀며 그 기준치에 어느 정도 가까워져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타인의 인생 속도와 내 인생 속도를 비교하는 순간 평온함은 사라지고 불안해진다. 각자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청렴' 학생회는 우리 순천대학교 학우들의 속도를 맞출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길을 함께 걷자고 말할 것인가를 기사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번 2022년도 출범하게 된 총학생회장 김태욱(사회체육학과, 16학번)과 부총학생회장 안동현(무역학과, 16학번)을 만나 인터뷰하고 구성해보았다.



선거본부 소개 및 출마 배경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순천대학교 제28대 청렴 총학생회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근 2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 활동에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렴 총학생회는 보다 청렴하게 학우들을 대변하는 집단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간 코로나 방역수칙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순천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활발하고 생기 넘치는 대학 생활을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이자 대학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거를 준비할 때처럼 다시 한번 대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질문인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학생사회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학생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전에 대학 구성원 중 한 사람입니다. 대학은 여러 분야에 교육과 학문의 연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집단일 것이며, 중세 대학의 역할은 사람으로서의 품성과 문화적 소양을 익히는 교양 교육이었습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고전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해석의 방법과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 주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학의 교양 교육이 지닌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포기한다면 '대학은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자와 계획이 잘 조화를 이루고 준비되어야 한다. '청렴' 학생회의 구성원과 각종 계획은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저희 '청렴' 총학생회는 단과대학 학생회 및 총학생회 경험이 있는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두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이전과는 다른 더 좋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구성원들을 모았으니 남은 것은 현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욱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구성원들을 이끌고 함께 좋은 한 해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12월 6일, 정책간담회 당시 '총학생회비 절반 인하' 공약에 대해 예산을 비롯한 실무적인 부분에서 후보자의 신분에서 볼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있는 듯 보였다. 당선 이후 변화가 있었을 듯 하다.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 질문에는 저희 청렴 총학생회는 방향 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본부로부터 예산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예산과 직결적인 문제에 있어서 학우분들의 복지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요구를 해왔고 다행히 대학본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순천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의 노력으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분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총장간담회' 공약과 관련하여 대학본부 교섭 확대 공약의 경우, '대학본부와 학생 정기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고영진 총장님 같은 경우는 학생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간담회를 통해 발굴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사담이긴 하나 제가 총학생회장 당선이 되고 총장님을 찾아뵈려 갔을 때 19년도에 간담회에서 제가 총장님께 드렸던 질문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대학본부와의 학생 정기 간담회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기본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참여도를 파악한 뒤 기획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자크 데리다는 '근대 대학은 조건 없이 존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여러 대학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재정은 물론 대학의 커리큘럼, 연구 관련 시스템 등 자유롭지 않다. 그 어느 조직보다 창의적이고 자유로워야 할 대학이 말이다. 대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방향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있더라도 생각하지만 불합리한 대우와 조건을 받는다면 타협은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의 자율성 확립을 위해선 구성원 간의 권리가 서로 동등해야 합니다. 현재는 교수, 직원, 학생의 위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이 개선되어 더욱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면 좀 더 조건 없이 존재하는 순천대학교가 되리라 믿습니다.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최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종의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집단'이다. 이런 집단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수'의 가치관과 관심의 척도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우리 순천대학교 학우들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는 학생회를 가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볼 시점이 다. 다양해진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넘어, 순천대학교의 발전을 원하는 구성원으로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문학의 요람 문예창작학과, 2022 신춘문에 당선



문예창작학과에 재학 중인 18학번 서범규 학우가 2022년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신춘문예에서 어린이·청소년극 부문에 당선됐다. 사단법인 한국극작가협회 신춘문예는 200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8명의 극작가를 배출했다. 당선인들은 현재 연극계 및 문학계에서 인정받는 극작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본교의 서범규 학우가 이들의 뒤를 잇게 됐다. 그가 당

선된 부문은 작년부터 신설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단막희곡이다. 서범규 학우의 당선작 『양들의 울타리』에 대해 심사 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양들의 울타리』는 소재 면에서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를 연상시키며 양들을 의인화한 어린이 철학 동화였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가

지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보고 토론을 해도 좋을 소재였다. 울타리로 비유되는 동굴, 혹은 우물을 넘는, 안정된 현재를 떠나 새로운 모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고민은 삶 속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 작품은 어린이들에게 거창하지 않지만 고민하는 법을 생각하게 하는 수작이었다.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 작가의 위트가 재미라는 배려로 포장된 것도 우수했다. 관객들에게 이 작품을 꼭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심사위원은 당선작으로 의견을 일치했다. -

서범규 학우는 인터뷰를 통해 당선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내가 후배님들께 큰 조언을 할 대단한 위치에 서 있지는 않다. 그래도 한마디를 굳이 한다면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글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경험에서 시작되고 끝나지 않나.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직접 마주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랑하는 것을 더욱 사랑했으면 좋겠다. 초고는 마음으로 쓰고 퇴고는 머리로 하란 말도 있다. 그러니 자신의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감정들을 글로 써가는 연습을 하길 바란다. 모든 후배님들이 저보다 더 좋은 글을 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지막으로 그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늘 처음 글을 썼던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글을 사랑하는 순수한 모습 그대로 문예창작학과 학우들과 교수님들께 자랑스러운 제자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 한다. 좋은 작품 쓰는 사람,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 좋은 말과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앞으로의 포부를 다졌다.

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1997년 개설되어 2022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을 양성해왔다. 18학번 서범규 학우뿐만 아니라 02학번 정준호 학우 또한 2022 매일신문 신춘문예 동시부문에 선정되면서 올해는 2명의 동문이 신춘문예로 등단하며 해마다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_박수정 기자

순천대학교 동아리, 2021 대학 독도 동아리 시상 휩쓸다

순천대학교 동아리 'JB(Just Barista)(대표 전자공학전공 황선우 학생)', '도담(대표 경영학과 김지윤 학생)', '로봇과학센터(대표 컴퓨터교육학과 서용현 학생)' 3개의 동아리가 대학 독도 동아리 시상식에서 각각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독도재단은 2009년 5월 '안용복재단'이란 이름으로 출범하였다. 독도재단은 아무런 대가 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안용복의 호국 의지와 희생정신처럼 민간주도의 실질적인 독도수호 활동으로 담아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에서 주관하는 대학 독도 동아리는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 및 홍보방안 구축 기반과 일본의 독도침탈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독도 동아리는 연간 활동 수행, 독도 탐방, 대한민국 독도문화대축제참가 등의 연간 활동 후 평가보고를 거쳐 연말에는 우수활동 독도 동아리 시상상을 갖는다. 지난 '2021 우수활동 독도 동아리 시상식'은 코로나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어 총 9개의 동아리가 우수동아리로 선정되었다.

▶ 도담과 독도 동아리

독도 동아리를 어떻게 접했나요?

독도 동아리 활동은, 경상북도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에서 주관하여 비교적 예전부터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도가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비교적 호남 권역보다는 영남 권역 위주로 활동의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었고,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독도는 모든 국민이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호남 지역의 대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활동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봉사 활동에 독도에 대한 지리적, 역사적 이슈를 접목하여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독도 동아리에선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나요?

▶ JB와 독도 동아리

독도 동아리를 어떻게 접했나요?

(재)독도재단에서 대학생 독도 홍보동아리를 모집하는 공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독도 동아리에선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나요?

저희 팀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20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SNS 매체를 통한 챌린지 활동, 독도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독도 방문 및 촬영,

도담은 지역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동아리로, 독도 동아리 또한 교육봉사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우리땅 독도 교실'이라는 타이틀로 올바른 독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는 강의식 교육이 아닌 독도 에코백 만들기, 독도 율놀이, 독도 경비대에게 카드 보내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몸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동아리원에게도 독도 바다캔들 만들기, 메모지 나눔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교내 재학생들에게 홍보활동도 진행하였습니다.

도담이 생각하는 도담의 수상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희의 그간 활동내역을 회상하며 저

는 '어쩌면 우리 팀의 수상 비결은 동아리원들의 진정성 덕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활동 당시 저희 팀의 동아리원들이 직접 프로그램 구성은 물론, 1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2-3차 수업으로 꾸준히 방문하며 교육하였고,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독도를 더욱 가까이 전달하여 재단 측에도 이러한 진정성이 잘 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담과 독도는?

도담과 독도는 악어와 악어새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말이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었고 상식과도 같은 말이었지만 더 자세한 알지 못된 퀴즈수업을 진행할 때 독도에 관해 몰랐던 부분을 더 알게 되었고, 여러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 수업을 함으로써 어린 멘티들에게 독도

에 대한 지식과 독도와 우리땅임을 알게 해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은 정규수업시간에 독도와 관련된 수업을 듣고 또 들어 이미 잘 알고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을 들은 지도 오래된 우리는 누구나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외치지만, 왜 우리땅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저희 나름의 방식으로, 독도가 '왜' 우리땅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쯤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하는 것에 힘쓰고 싶습니다.

영, instagram 계정(scnu_jb)에 직접 그런 독도 웹툰 및 독도 소식을 담은 카드뉴스 제작 게시 등 다양한 온라인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더불어 JB의 동아리의 특성을 살린 독도 텀블러 및 컵홀더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오프라인 활동도 이루어졌습니다.

JB가 생각하는 JB의 수상 비결은 무엇인가요?

현재 JB는 2020년도 전국대학 독도 동아리 '최우수상', 2021년도 전국대학 독도동아리 '대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활동에 비해 과분한 상을 받아서 아직도 얼떨떨하지만 굳이 수상 비결이라고 하면 꾸준함 인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JB와 독도는?

많은 사람들이 커피동아리인 JB가 독도 동아리에 속해 있는 것에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JB는 순천대학교 커피동아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로 구

성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JB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는 당연히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대한민국 독도를 홍보하는데 앞장서서 꾸준히 활동할 것입니다. 이런 JB의 행보를 관심있게 지켜봐주시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독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유인선 기자

삶의 운명을 결정할 전동 킥보드, 향림인은 이렇게 결단했다.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운전엔 안전띠를 채운 순천대 '지고지순' 팀

걸음보다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데려다주지만 때론 삶의 끝으로 데려다주는 것, 바로 전동 킥보드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킥보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가까운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매년 보급률과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안전사고의 급증 역시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에 이어 2020년 897건을 돌파하였다. 지난해 5월 13일,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은 끊임없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새롭게 개정되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하나, 만 16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 및 연령이 만 16세 이상으로 상향되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둘, 전동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은 불가하다.
전동 킥보드 1대에 2인 이상 탑승 적발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셋, 안전모 착용과 등화장치 작동은 필수이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더불어, 야간 주행 시 전조등, 미등, 반사경과 같은 등화장치를 미작동하는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넷, 인도 통행 불가, 자전거 도로로만 통행 가능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자전거 도로 통행이 원칙이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 시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려 걸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만약, 인도 주행 중 보행자에 대한 인명 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다섯, 음주 운전은 불가하다.
단순 음주의 경우 10만원, 측정 불응의 경우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는 대학에서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로부터 안전할까? 실제로 개인형 이동 장치의 보편화에 따라 전국 대학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또한 줄줄이 발생해왔다.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대학 내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처 구역을 설정하여 무분별한 주차를 막을 것을 규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순천대학교 '2021학년도 행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청년정책발굴' 사업에 참여한 '지고지순' 팀은 전동 킥보드의 무작위 주차 문제 해결과 학우들의 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지고지순' 팀은 전동 킥보드와 부딪혀 신체적 피해를 입은 뺨한 팀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교내 포스터와 현수막을 활용하여 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 법안을 홍보함과 더불어 학우들이 개정된 법안을 인지하고 꾸준히 지킬 수 있도록

바른 주차 인증샷을 남기는 학생 참여형 SNS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교내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 10곳의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 열린광장 ▲ 학생생활관 관리동 앞 ▲ 미래창조관 자전거 주차장 ▲ 사회과학대학 자전거 주차장 ▲ 인문예술대학 입구 ▲ 공과대학 3호관 입구 앞 ▲ 공과대학 2호관 자전거 주차장 ▲ 공과대학 1호관 계단 옆 ▲ 사범대학 1호관 앞 주차 ▲ 사범대학 3호관 자전거 주차장)

'지고지순' 팀의 프로젝트가 마무리 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교내를 누비는 학우들은 지정된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으로부터 보다 더 안전한 교내 생활을 보장받는 중이다. 교내를 거닐다 보면, 여전히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주차된 몇몇 전동킥보드가 눈에 띄지만 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의 가시성의 효과는 뛰어났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임을 나타내는 노란 표지판

은 강제성 혹은 의무성을 띠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의 존재는 다수의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의 발길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 성공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를 실현할 눈에 보이는 주차구역이 교내 환경 변화에 앞장선 것이다.

교내 전동킥보드를 애용하는 김수아 학우는 "이전에는 뺨 부스러기로 길을 표시하듯 킥보드가 길가에 하나씩 놓여 있었다.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이후로는 목적지 주변에 도착했을 때 노란 표지판이 있는지 둘러본다."라며, "많은 킥보드가 표지판 주위에 정렬되어 있으니 분산되어 있는 킥보드를 찾으려 많은 시간을 쓸 필요도 없어서 좋다."라고 새로 지정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이용 소감을 밝혔다.

'지고지순' 팀원 안하영 학우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목에 놓인 킥보드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프로젝트가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라며, 교내 주차 현황에 대해 "교내의 좁은 인도에 킥보드를 주차하는 것은 앞으로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나의 편리함이 타인의 안전을 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학우들의 올바른 주차를 독려했다.

'지고지순' 팀은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지정 및 전동킥보드 개정 법안을 홍보하며 안전한 교내 환경 조성에 힘쓴 결과, 해당 사업의 우수 활동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였다. '지고지순' 팀장 이승지 학우는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 지정 과정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두의 올바른 주차 습관이 필요하다. 우리는 학우들의 피해 사례와 의견을 참고하여 킥보드 이용률이 높은 장소를 물색하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주차 구역 표시를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본인의 편의만을 위해 안전 규칙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주행과 주차는 이제 멈춰야 한다. 모두가 안전 규칙 및 개정 법안을 준수하고,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한다면 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윈윈(win-win) 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모두의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순간의 안전이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의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 결국, 올바르게 주차하고,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 주행하는 한 명이 여럿이 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며, 이는 올바른 교통 문화를 선도한다. 도로 위 모든 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주의 깊은 이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before

after



_오서영 기자

순천대학교 인재 양성의 한 걸음,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이란 공학계열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 과정 동안 배운 이론을 토대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과정을 뜻한다. 즉 산업 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창의적 종합 설계'라고도 한다.

캡스톤 디자인 공모전은 2021학년도에 '캡스톤디자인' 혹은 '종합설계'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에 한해서 자유 주제로 진행했다. 학생들의 전공을 살릴 수 있어, 더욱 다양한 과제를 만나 볼 수 있는 주제다. 이번 공모전은 123개의 팀이 참여하는 큰 성과를 보였다. 이는 학생 주도형 학습을 통한 의욕 고취, 창의적 현장실습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공모전의 목적 또한 달성한 것으로도 보인다.

심사 기준은 목표설정의 창의성 및 명확성, 수행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도 등 4가지의 항목을 토대로 평가를 하였다. 작품의 독창성 및 캡스톤 교과목의 연계성, 기획성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중중걸음'(기계공학과)팀이 대상을, '베이커리'(조리과학과), 'EMP'(전기공학전공) 팀이 금상을 받으며 총 13개의 팀이 수상하였다.

대상을 차지한 '중중걸음' 팀이 고안한 캡스톤 디자인은 '아두이노를 이용한 슬라이더 형식의 문록 방지 장치'다. 문록은 옆 차량이 문을 열다가 차체에 부딪혀 흠집이나 자국을 내는 일을 말한다. 기존에는 문록을 방지하고자 도어 가드나 도어 엣지를 사용했다. 이는 모두 차체 외부에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중중걸음' 팀의 문록 방지 장치는 테슬라의 숨김, 돌출식 손잡이를 참고하여 차량 문에 내장된 형태로 필요할 때만 작동된다. 기존 제품들은 미관을 해치거나 주행 시 공기저항이 높아져 풍절음을 발생시킨다는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다.

'중중걸음'팀의 최종 목표는 문록 방지 제품의 '아이디어의 창의성'과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여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었다. 수상의 영광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단계 더 높은 목표를 성취한 것이다. 또한 공모전을 진행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팀원 모두 4학년으로 이루어진 '중중걸음' 팀은 대상 수상이라는 결과와 함께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국내 캡스톤 디자인 교육의 학습효과에 관한 메타분석] 논문에서 따르면, "캡스톤 디자인 교육은 높은 학습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수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캡스톤 디자인 교육이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 능력, 협업능력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이 사회적 영역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캡스톤 디자인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계속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본래의 캡스톤 디자인은 특정 공학계열 학과에만 국한되어 있어 다른 인문 계열 학생들이 접하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융합 캡스톤 디자인은 계열 구분 없이 다학적으로 연구 가능하므로 학생들의 능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중중걸음' 팀의 김단비 학생은 '캡스톤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나, 팀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캡스톤 디자인을 처음 접할 당시에는 작품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고민하다 보면 좋은 제품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을 전하며 캡스톤 디자인을 어려워하는 학우들에게 응원을 전했다.

_남가은 기자

당신과 학식의 어드벤처타임

오전부터 실 새 없이 강의를 들던 학생들이 공복을 느끼고 점심을 먹기 위해 일제히 발을 옮깁니다. 많은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단연코 학생 식당일 것입니다. 외부인도 입장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회관 정문에서 QR코드와 발열 체크의 절차를 걸친 학생과 교직원만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식당 안에 들어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두 대의 키오스크(무인주문 시스템)가 우리의 주문을 기다립니다. 이 키오스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결제해 식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학생 식당은 이용객의 감소로 인해 한 번의 메뉴 간소화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넓은 선택의 폭과 변하지 않은 퀄리티가 우리를 가성비 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학생식당 측에서 학생들의 메뉴 선호도 순위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메뉴는 치즈돈가스입니다. 치즈돈가스가 아니라도 학식의 모든 돈가스는 많은 학생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이런 돈가스의 비결은 결코 저렴한 단가의 돈가스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돈가스의 퀄리티를 냉동 돈가스보다 좋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위는 닭갈비 덮밥으로 2021년도에 잠깐 모습을 감췄지만 2022년이 되자 다시 우리와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닭갈비 덮밥의 비결은 오랜 기간 고민하고 시도해서 만들어진 닭갈비 양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양념을 구상한 결과 많은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3위는 우리의 소울푸드 라면입니다. 다들 다른 사람이 끓여주는 라면이 더 맛있게 느껴졌던 경험 많으셨을 것입니다. 학식 라면은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육수에 라면을 끓이고 있으므로 더 깊은 맛을 낼 수 있고 집에서 끓이는 것과 다른 맛이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학생식당의 일과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학생 식당 구성원은 식당을 총괄하는 김규나 선생님과 직접 조리 해 주시는 조리 종사원 7명이며, 조

리원들의 근무 시간은 8시~5시입니다. 구성원은 모두가 보통 출근 시간보다 30분~1시간 일찍 출근해서 입고되는 식자재의 검수를 시작합니다. 그날 사용될 식자재가 아침 일찍 입고되면 식자재의 수량 및 상태를 검수한 후 조리원들은 분담된 업무에 따라 바빠 움직입니다. 식당이 11시 30분부터 식사가 가능하므로 보통 조리는 11시쯤 완성이 되고 11시가 되면 학생 식당 봉사 장학생들이 출근해서 11시 30분부터 식당이 오픈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용자 수가 줄어 조리원들에게 배식 전 식사할 시간적 여유가 마련되었고 조리원들은 시간을 쪼개 식사를 합니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1시 20분쯤 되면 마무리 준비를 합니다. 봉사 장학생들과 2시까지 함께 청소 및 설거지를 하고 2시부터 잠깐의 휴식과 다음날의 식자재 준비를 한 후 5시에는 퇴근합니다.

학생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낮은 음식 단가로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학생 식당의 음식 단가는 상당히 저렴한 편인데 이 음식 단가에서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더 나아가 조리원들의 임금과 식자재, 납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면 줄일 수 있는 식자재비에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영양사 중 고객(이용자)에게 맛있는 메뉴를 제공하고 싶은 영양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메뉴를 구성해보면 단가라는 벽에 부딪혀 포기하게 되고 그 단가에 맞는 메뉴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국립대학 중 몇 안 되는 직영 운영 식당이기 때문입니다. (직영 식당: 학교가 운영자가 되어 운영하는 식당) 우리는 학교에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알고 조리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자재비에 여유가 생겼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을 꼽자면 시시각각 달라지는 식당의 상황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해 보면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보관된 식자재가 다 상해있고, 가뭇과 장마로 식자재 수급이 되지 않기도 하고, 한가지 사건을 꼽자면, 2021년 어느 여름밤 12시에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푸드코트에 있는 정수기의 관이 터져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화를 받고 그 시간에 식당에 가보니 푸드코트 식당 바닥은 그 정수기에서 새어 나온 물로 가득 차 있었고 새벽같이 조리원들과 출근해 물을 퍼내고 닦았던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초중고등학교처럼 정해진 양의 음식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이용자 수에 항상 긴장하

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하는 도중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학생식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신입생을 위한 '돈가스 네고왕'을 한 번 더 진행 하고 절기와 계절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내 구성원을 위해 캠핑 감성의 이벤트나 크리스마스 이벤트 등 운영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이벤트를 구상 중입니다.

to. 학생 식당 이용객 여러분

교내식당은 학내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비록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도 있을 테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또한 순천대학교의 구성원임을, 그 구성원들은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from. 학생 식당 총 관리 김규나

학교생활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학생 식당에서의 식사! 그 뒤편에는 많은 분의 노고도 함께 합니다.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학식으로의 여행을 만족스럽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_김진서 기자

당신이 몰랐던 순정을 찾아서

파릇한 신입생이라면 대학생활에 로망이 있을 것이다. 다양한 대외활동, 교내 근로 장학, 학생회, 교내 언론사. 우위를 가리는 것은 개인의 몫이지만, 교내 홍보대사 활동도 절대 상위권에서 빠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순천대학교 홍보대사 '순정'의 팀장 박민영(사회 체육학과, 18학번)과 함께 홍보대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순정'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저희 순정은 '순천대학교 정보통'이라는 뜻에 걸맞게, 타 대학에 순천대학교 홍보(순천대학교 공식블로그 SCNU 학과소개 및 SCNU story), SNS활동(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페이스북, 순정 오픈 채팅 운영), 교내/외 주요 행사 안내 및 의전 활동,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인터뷰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대학생이면 용돈을 받아도 부족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홍보대사를 하면 한 달마다 개인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순정'이 작년에 고영진 총장님 앞에서 성과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홍보대사의 광범위한 활동에 만족하신 총장님께서 2021년 하반기 이후 성과금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내 각종 프로그램 선발 시 우대며 향립취업향상 포인트 실적 인정, 홍보대사 활동복 지급 등 재학 중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근데 위의 것보다 좋은 점은 졸업하고 학교에 이름을 걸고 활동했다는 홍보대사만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자소서 등에 너무나도 큰 장점이 됩니다. 요즘 같은 IT 시대에는 SNS 나 마케팅 등을 볼 때 교내/외 활동 경험들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순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상황이 안 따라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순정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큰 편인데 그래서인지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틀에 맞게,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이라는 고전적인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싶었던 사람으로서요. 사람들을 만나며 설득도 해보았는데요. 솔직히 순천대학교 홍보대사가 다른 대학교보다는 대우가 좋은 편이 아니라 100을 노력하면 10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습

니다. 그래서 열정도 많이 줄기도 했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성취점까지는 온 것 같아 뿌듯했어요. 제 도전에 함께해준 팀원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순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희 순정은 타 대학 교류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목포대학교와의 교류 활동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유는 이때까지 타 대학 교류 활동은 전던 비대면으로 활동했는데 목포대학교와는 최초로 대면으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직접 목포대학교에 가서 학교탐방 및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순천대학교와는 또 다른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서로 만나서 '순정'과 목포대 홍보대사 '들해솔'의 다른 점, 홍보대사를 하면서 힘든 경험 등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홍보대사로서의 마음가짐이나 행실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제주대학교 홍보대사 '체라미', 전북대학교 홍보대사 '전율' 분들도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앞으로 '순정'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겠나요?

가장 먼저 키워드는 가장 산뜻하고, 친근한, 선배미가 떠오르는 집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분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 중고등학생 때와는 다르게 진짜 홀로서기를 하는 단계이기에 모든 게 어색하고,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저희 순정이 다가가기 가장 쉽고, 친근하고 산뜻한 느낌의 편한 선배라고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어떤 집단에 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때론 걸음으로 보이지 않는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겐 '순정' 활동이 그랬고요. 하지만 이 활동을 해오면서 저는 제 꿈을 찾아가고, 적성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의미한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취업준비, 4학년 준비니 이것저것 정신도 없고 우울해지던 찰나에 이런 좋은 기회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성과 애정을 쏟은 '순정'이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랑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천대학교를 대표하는 하나의 조직으로서의 '순정'은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감축되자 인스타그램을 개설하면서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꾸준한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도 우리 학교의 신입생들에게 멋진 길잡이가 되어주고, 학교의 미소가 되어 활동하길 바랍니다.



_김예은 기자

화려한 장학금에 한 걸음 closer, 나는야 슬기로운 향림인

타지역 학생인 탓에 단기알바를 구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사고 싶은 옷도 많고 먹고 싶은 음식도 많은 학생. 혹은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아 알바를 할 수 없는 학생, 학교 근처에서 알바 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아 고민인 학생! 순천대학교 재학생이라면 근로를 통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재학 중 최저시급보다 더 높은 시급을 받으며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과 궁금한 점까지. A~Z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장학금
- ▶시급: 교내근로 9,160원 교외근로 11,150원
- ※주의사항: 타근로사업과 동시신청 불가능(ex. 교내근로와 교외근로, 나눔지기, 봉사장학 동시신청 불가능)

Q. 국가근로장학생의 선발 인원수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운영예산, 근로자 수요자 수, 학생 신청자 수, 기타 학내 상황에 따라 매 학기 마다 달라집니다. 1학기보다 2학기 선발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바로 위 내용에 따른 것이죠. 학생들이 겨울방학에는 졸업, 학년 변화,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바빠기 때문에 비교적 여름방학보다 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학기 중 교내근로와 방학 중 교내/교외근로에 선발된 학생들의 평균 소득분위와 성적은 얼마나 될까요?

국가 근로장학생들의 소득분위를 직접 계산해본 결과 2021-2학기 기준, 학기·방학 교내근로와 방학 교외근로 모두 평균 3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사 결과 2021-2학기 기준, 학기·방학 교내 근로와 방학 교외근로 학생들의 백분위 평균점수는 모두 90점입니다.

Q. '방학 집중근로 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사전선정(근로기관-근로장학생 매칭) 명단에서 우선선발'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교외근로의 경우 각 기관이 장학재단에 수요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재단이 학생들의 희망신청기관을 검토하고 학생과 기관을 매칭해요. 이후 장학재단이 학교로 공고를 보냅니다. 그 공고(매칭사항)를 보고 학교에서 순위를 매기죠. 순위 안에 든 학생들은 선발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후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뽑을 수 있는 인원이 80명인데 기관 매칭을 통해 장학재단이 100명의 학생 리스트를 보냈다고 가정하면, 선발 기준에 따라 80명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나머지 20명이 후보가 되는 겁니다.

Q. 국가근로장학 활동에 앞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라는 어플을 통해 출근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학생이 출근을 했는데도 출근부를 실수로 입력하지 못했거나 잘못 체크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대학에서 학생의 근로를 확인 후, 기관인정 시간으로 카운트되며 이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지정하여 제함). 간혹 학업 시간표 및 업무 스케줄 변동 등의 상황으로 근로 인정을 못 받는 상황도 생기는데요. 학생의 국가 근로를 위해 스스로가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Q. 출근부 체크 시 '식사 시간' 여부를 체크합니다. 만약 식사 시간이 30분보다 짧았거나 식사 도중에도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경우 식사 시간은 어떻게 체크 하나요? (예를 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을 돌보는 업무)

식사 시간 즉, 휴게 시간은 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13시(식사 시간)에 근로 시, 식사 여부를 'N'으로 체크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9시~18시 근무로, 대부분의 기관이 12~13시(1시간)에 점심시간이므로 식사 시간 'Y'로 체크 하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식사 도중에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근로라면 담당 선생님과 협의 후 'N'으로 체크합니다.

Q. 우리 대학 학생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소수 학생들의 지각 또는 무단결근이 간혹 존재합니다. 근로가 단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힘들 경우, 근로자 담당자와 업무협약이 가능하니 본인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에 부담 갖지 말고 근로자 담당자분께 연락드리길 바랍니다.

Q. 국가근로장학생들이 자주 드리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간 중 학생 사정으로 근로를 일시 중단해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많이들 묻고는 합니다. 단기적 휴근의 경우, 근로지(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근로 상황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단, 출근 불인정). 장기간 근로가 어려울 경우에는 근로 포기가 가능합니다.

Q. 근로 중 자주 휴근하는 학생은 차후 근로장학생 선발 시에 불이익을 받나요?

대학 측에서 제재가 가능하나 학생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에게 제재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정근로가 적발되거나 근로자 담당 선생님께 컴플레인 이 들어오면 해당 학생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만약 객관적 사실이 입증된다면 제재가 들어가겠죠. 또, 부정근로 사실이 교육부나 장학재단에게 발각된 학생들은 곧바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청소년교육지원사업(나눔지기)

-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학교이탈청소년 등의 배움지기(멘티)에게 교육기부 활동을 통해 희망을 선사하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 ▶시급: 2022년 기준 12,500원
- ※주의사항: 기관 매칭 시, 기관 담당 선생님께서 귀 기관에 선발되었음이 아닌, 귀 기관으로 활동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불임 문서의 [희망 수혜 기관 정보]란에 활동하고자 하는 기관을 기재

Q. 2021년에 나눔지기를 N차에 거듭해 모집하셨더라고요. 나눔지기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가 적나요?

네, 과거에는 공급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지만, 현재는 그 반대입니다.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나눔지기 활동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청한 모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교에서 학생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고 학생의 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자격 미달(성적) 시 그 학생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Q. 나눔지기 선발 인원도 매 학기 변동되죠? 선발 인원은 학교에서 정하나요?

네, 학교에서 해당 년도 주어진 예산에 따라 정합니다. 2018년도에 예산이 약 1억 정도였고 2019년도에 약 3억, 2020년도에 약 6억 6천만원, 2021년도에 약 11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의 경우, 학생들의 활동 결과(실적)에 따라 대학에서 신청 예산 편성을 결정하고 제출합니다. 순천대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활동과 생활비 등의 경제적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하여 나눔지기 예산을 공격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선발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데요. 1학기에 1번, 2학기에 1번 선발하고 학교의 예산과 결여 인원에 따라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Q. 올해 나눔지기 시급이 11,150원에서 12,500원으로 인상되는데, 이외에 다른 변동사항은 없나요?

있습니다. 올해는 나눔지기 사업이 아닌, 다른 이름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시급과 프로그램명이 바뀌는 것 외에도 선발할 때, 사범대생을 우선선발 한다는 등 약간의 변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만 변동될 뿐, 본질은 나눔지기과 같으니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나눔지기를 아직 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기관에 신청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 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나눔지기 기관 Top 10은 어디인가요?

매곡지역아동센터, 용당지역아동센터, 순천북초등학교, 한고을지역아동센터, 참샘지역아동센터, 우리지역아동센터, 상사지역아동센터, 깨복쟁이지역아동센터, 조례지역아동센터, 꿈꾸는학교지역아동센터 입니다. 순천대학교 학생들이다 보니 당연히 학교 근처 기관은 경쟁률이 높은데요. 기관마다 6~7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원이 많을 시에는 예산이 남아도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 기관을 찾아보고 신중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Q. 나눔지기를 하는 학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나눔지기도 근로장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를 통한 출·퇴근 실수입니다. 부득이하게 버튼을 누르지 못했을 경우, 학생이 활동하고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관이나 학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꼭 출·퇴근 버튼을 제 시간에 잘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Q.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나눔지기 장학금 언제 들어올까요?'라는 질문들이 자주 보이곤 합니다. 혹시 장학금 지급일이 늦어지는 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나눔지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학생들이 활동을 마친 후 기관에서 활동 확인을 하고 대학에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된 것을 바탕으로 학교가 학생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시스템이죠. 때문에 나눔지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모든 참여자에게 동시에 장학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각 기관에서의 작업이 늦어진다면 장학금 지급일도 당연히 미뤄지죠. 반대로 모든 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할 시, 장학금이 예정일보다 일찍 들어올 수 있습니다.

Q. 나눔지기 활동 중 기관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관 변경은 원칙상 불가능하나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피치 못할 사정이란 기관에서 교육 활동에 어긋나는 활동(ex. 과도한 청소)을 지시했거나 학기 중과 방학 중 거주지가 다를 때(학기 중 기숙사 사용) 등이 있죠.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대학본부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일부는 인정하지만, 장학과 관련된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나눔지기 계획서를 작성할 때, 1~2개월 동안 야근하며 작성할 만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근무 하는데요. 앞으로도 화려한 예산으로 학생 여러분께 보답할 테니, 우리대학 학생들이 나눔지기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용돈을 벌어보고 기관 아이들과 깊은 라포 형성을 하여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순천대학교가 4년째 10년 연속 권역별 주관 대학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4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10년 연속 권역별 주관 대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4년 안으로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 중 멘토수/활동시간/장학금지급률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게 저희 대학이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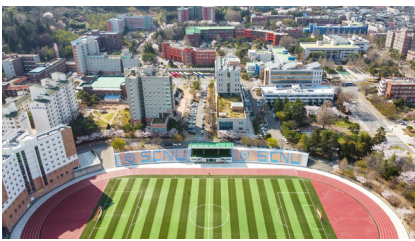
_김상희 기자

순천대학교,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융합전공 운영

순천대학교가 운영하는 융합전공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순천대학교 내부의 학과들이 융합하여 운영되는 융합전공, 두 번째는 광주·전남에 속하는 15개의 대학들의 참여로 운영되는 융합전공인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IU-GJ)이다. 교내 융합전공은 기존 학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거나 융합된 새로운 전공으로, 교내·외 2개 이상의 학과(부) 또는 전공의 소속 교원이 참여하여 개설 된다. 이와 달리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의 융합전공은 그에 속하는 15개의 대학 중 2개 이상의 대학이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등의 협력 과정을 거쳐 새롭게 설치하는 전공이다. 광주·전남의 협약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우리 대학에서 제공되지 않는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교내 융합전공은 복수전공으로 해당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이수를 인정하며 별도의 융합전공학위가 수여되지만, IU-GJ 융합전공은 부전공으로만 이수가 가능해 별도의 학위는 수여되지 않는다.

순천대학교 내 융합전공

2020년도 3월부터 운영된 교내 융합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문 간의 벽을 허물어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교내 융합전공은 총 6개로 기존 5개의 전공에 2022년 1학기에 들어 신설된 기후변화 융합전공이 포함됐다. 순천대학 내 융합전공은 매년 1월 및 7월 초 복수전공 신청 시기에 융합전공도 함께 선발한다. 기본요건은 전공에 따라 조건이 상이하기에 해당 전공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야 한다.



융합전공	학과소개	참여학과	선발대상 및 인원
콘텐츠 매니지먼트 융합전공	콘텐츠 기획, 영상 제작, 비즈니스, 마케팅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유튜브나 SNS 등 새로운 마케팅 환경에 대응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화애니메이션학과(주관), 회계학과	2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학년별 25명 내외 선발 예정
천연물의약산업 융합전공	생명과학 천연물 활용이 융합된 첨단 제약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친화적이며 시대변화를 견인하는 생명과학 실무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개설 됐다.	생물학과(주관), 화학과, 화학교육과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20명 내외 선발 예정
미래환경융합 융합전공	생태와 환경, 정보통신과 디자인을 융합한 창의적 교육을 통해 전남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문화산업을 IT와 접목하여 지역 경쟁력 및 경제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설 됐다.	환경교육과(주관), ICT융합공학부, 영상디자인학과.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20명 내외 선발 예정
지능의료기술 융합전공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의학과, 인지학과, 제조공학 분야의 기초 지식과 기술을 강화하여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및 인공지능과 의료 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신산업을 창출하여 지역과 국가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컴퓨터교육과(주관), 약학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피아노학과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20명 내외 선발 예정
스마트농업 융합전공	4차 산업의 빅데이터·인공지능·IoT와 스마트농업 분야 교육을 통해 전남 블루 농수산 맞춤형 인재 및 지역 산업을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ICT융합공학부(주관), 전기공학전공, 동물자원과학과, 농생명과학과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20명 내외 선발 예정
기후변화 융합전공	기후변화 관련 산업과 직무, 실무 분야에서의 현장 기술인재 지식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지식의 학습과 기본 소양, 실무 및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새롭게 창출되고 융합되는 기존 및 신규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 그 목표이다.	무역학전공(주관), 환경교육과,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30명 내외 선발 예정

※ 3개의 트랙제로 운영되며, 2개 이상의 트랙을 이수하여야 함

융합전공	학과소개
미래에너지신산업-IP 융합전공	광주전남 지역의 교수자원과 산업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실무중심 교육 실시 목적으로 신설된 융합전공이다. 에너지신산업에 관련된 IT, 전력거래, 소재, 부품 장비 등 지역산업 수요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의 에너지 관련 산업을 성장시키고 주도해나갈 수 있는 진취적인 창의 융합형 지역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융합전공	최근 재생에너지의 대규모화, 계통연계의 수요 증대, ICT기술의 발달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화기술에 대한 연구와 관련 전문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신설한 융합전공이다.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각 대학에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지역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재 양성이 그 목표다.
친환경스마트선박 융합전공	기존의 조선해양공학 뿐만 아니라 스마트선박, 크루즈 운용과 관리, 고객센터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설한 융합전공이다. 친환경 스마트선박의 국가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수요자 중심의 첨단 버추얼 강의 개설을 통한 학위과정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도심항공모빌리티 융합전공	항공우주, 기계, 전기, 전자, 통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공학 분야가 결합된 융합전공으로, 기체 개발 및 운용, 항공교통관리 및 버티포트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다양한 공학 요소를 종합적으로 교육하여 주전공과 연계한 미래형 항공운송기기의 기술 및 연구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개설됐다.
첨단부품소재 융합전공	전남지역 제조업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개설한 융합전공이다. 소재 부품 분야에 범용 가능한 직무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현장 실무 전문가의 해결 노하우를 전수 받아 문제해결역량이 뛰어난 현장실무형 인재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융합전공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의 공동교육과정 운영 협약)에서 22년 1월부터 신설되는 융합전공은 광주·전남 지역의 15개 대학 내 학과 또는 학부가 참여하여 지역산업 수요와 학생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설되었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에 참여하는 대학은 ▲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동강대학교, ▲동신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 ▲남부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호남대학교로, 총 15개의 대학이 소속되어 있다. 에너지신산업분야와 미래형운송기기산업분야를 핵심으로, 대학교육혁신본부에서 개설한 융합전공은 총 5개의 과정이다. IU-GJ 융합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사업 참여 대학 소속의 재학생이어야 하며 해당 소속 대학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어야 한다. 또한 총 취득학점의 평균 평점이 4.5점 만점에 2.5점 이상인 자로 학칙에 의한 징계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해당 전공의 지원 자격과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2학년도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융합전공 학생 모집요강에 게재되어 있다.

나의 미래를 위한 도전

순천대학교 내에 개설된 융합전공은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이하 'IU-GJ')에서 운영 중인 융합전공과 다르다. 광주·전남의 협약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므로 우리 대학에서 제공되지 않는 분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더불어 지역사연 수요 및 학생 취업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IU-GJ 융합전공 운영을 주관하는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혁신본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서 지정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선정됐다. 이는 기존 융합전공과의 차별점이자 걸림돌로 작용되는 대학외부에서의 수업이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임을 나타낸다. 특히 광주·전남의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 학점 교류의 범위가 기존 졸업소요 학점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되어 참여대학 소속 학생들이 융합전공 내에서 더욱 자유롭게 진로 선택을 위한 강의를 수강하고 학점 취득이 가능해졌다. 융합전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문 간의 벽을 허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전공이다. 자신의 역량과 더불어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